

1. 일본 문화로서의 욱일기

욱일기 디자인은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상징한다. 이 디자인은 일본 국내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욱일기 디자인은 풍어기나 출산, 명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 문화와 욱일기



『선악아수백』속의 「기요모리 스님」아다치 긴코, 1885



「복신의 에노시마 유람」 오치아이 요시이쿠, 1869

시민 생활과 욱일기



풍어기를 올리고 귀환하는 피난 어선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우케도여항) (2017 Kyodo News제공)



홋카이도 신칸센의 개통을 풍어기로 축하하는 사람들 (2016 Kyodo News제공)

참고 자료

●스가 관방장관 기자회견 2013년 9월 26일 오전 (발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욱일기 디자인은 풍어기나 출산, 명절을 축하하는 깃발, 또는 해상자위대 함선의 깃발 등 일본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이것이 정치적 주장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ttv.gov-online.go.jp/prg/prg8519.html>



2. 자위대 공식 깃발로서의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 (연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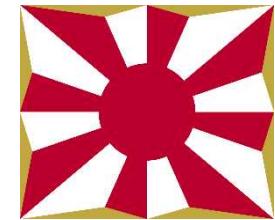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 (연대기)는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육일 의장(意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 이후, 자위함기 및 연대기는 국내외 다양한 자리에서 게양되어 왔다.

이 깃발들은 현재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자위함 또는 부대의 소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상자위대
자위함기



육상자위대 자위대기
(연대기)



2019년
중국에서 거행된 국제관함식 때,
칭다오항에 입항한 해상자위대 함정



2018년
파리에서 거행된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한 육상자위대 부대(싱가포르군과
함께)



1998년
한국에서 거행된 국제관함식 때,
부산항에 입항한 해상자위대 함정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육일 디자인

햇살이 뻗어 나가는 육일 디자인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국기, 애리조나주(미국) 깃발, 라라주(베네수엘) 깃발, 벨라루스 공군기 등 유사한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국기(1995년 제정)
<https://www.vlada.mk/?ln=en-gb>



애리조나주 깃발(1917년 제정)
<https://az.gov/>



베네수엘라 라라주 깃발(1901년 제정)
<http://www.lara.gob.ve/site/>



벨라루스 공군기(2001년 제정)
<https://www.mil.by/ru/encklop/heraldry/vvspvo/>